미얀마 불교미술 국내 첫 전시

부산博 '미얀마의 불교미술' 展
11월 19일~2020년 1월 12일

미얀마 불교미술품 엄선 110여 점
'석조 항마촉지인 불상' 최초 반출
역사·문화·전통불교미술 한자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처음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2019년 국제교류전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개최한다. 부산박물관 개관 41주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아세안 10개국 중 대표적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엄선된 불교미술품 110여 점을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미얀마 불교는 5세기에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미얀마 남부 몬족들에게 전래된 상좌부불교로 11세기 바간 왕조 당시 미얀마 전역으로 전파됐다. 불교미술 역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바간 왕조 때 활발했다. 바간 사원의 티베트풍 벽화 등에 미얀마 미술이 잘 드러나 있다.

부산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미얀마 현지 박물관의 자료를 조사하고, 미얀마 종교문화부 고고학국립박물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에 미얀마 국립박물관 4개 (양곤·네피도·바간·스리 크세트라) 처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 유물 110여 점을 전시하게 됐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인 만큼 불교미술을 통해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를 통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장 '에야와디강의 여명, 뿌와 몬'에서는 미얀마의 선주민인 뿌족과 몬족의 불교유적과 유물을 통해 미얀마 불교문화의 원형을 조명해 본다.


싯다르타의 삭발, 바간시대,11~12세기,바간고고학박물관


붓다의 첫 설법, 바간시대,11~13세기,바간고고학박물관

△2장 '공덕의 평원, 바간'에서는 최초의 통일왕조인 바간 왕조의 상좌부불교의 수용과 발전상을 소개하고, 이 시기에 화려하게 꽃피운 불교미술을 살펴본다.

△3장 '분열과 통일, 생성과 소멸의 시간'에서는 왕조의 분열과 소멸, 통일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불교문화의 모습을 다루었다.

△4장 '일상속의 불교'에서는 마지막 불교 왕국 꼰바웅의 불교미술과 미얀마인의 일상 속에 꽃 피운 불교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주요 전시유물은 미얀마 초기불교 문화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스리 크세트라 유적 출토 '은화', '봉헌판'을 비롯해서 '붓다의 탄생', '싯다르타의 삭발', '고행하는 붓다',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등 부처의 팔상을 표현한 단독 조각상과 '보살상', '범천상', '낫' 등 미얀마 불교의 다양성과 문화혼성(文化混成)을 보여주는 유물도 같이 전시된다. 특히 부처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팔상 장면을 담은 단독조각상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불교미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상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전통불교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미얀마에서 해외로 처음 반출되는 네피도 국립박물관 소장 '석조 항마촉지인 불상'을 비롯하여 미얀마 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불교미술을 대규모로 선보이는 전시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4시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에는 부산시 및 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한 문화계 및 학계 인사, 각국 영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 개막식에 앞서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는 특별초청 강연회도 진행된다. 식전공연으로 미얀마 전통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12월 13일에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와 공동주최로 '미얀마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중 도자 진수 만난다

한중도자문화교류전 도연유정
12월 5일~내년 2월 2일 문화정품관갤러리

김억주 전통 찻잔 등 1500여 점
중국 이싱 자사호 130여 점 전시
'불교와 자사예술' 이야기 마당도

한국차문화협동조합과 중국 이싱 용덕당, 문경 황담요는 12월 5일부터 2020년 2월 2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에서 2019년 한중도자문화교류전 '도연유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경 황담요의 문경 전통 찻사발과 찻잔 1500여 점과 장작가마 소성 자사호, 이싱 자사호 작가 10인의 작품 130여 점이 전시된다.

문경은 한국 찻사발의 재료와 조형 및 소성 방식 등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찻사발 축제를 열고 있다. 이싱은 중국 도기(陶器)의 수도이면서 자사차호(紫砂茶壺)의 고향이다. 자사차호는 차를 우리는 주전자로, 차 도구 시장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

도자의 도시인 문경과 이싱은 도자 관련 학술과 기술을 비롯하여 문화와 경제 등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교류를 10년 째 이어오고 있다.

두 도시간의 이번 도자문화교류전은 문경과 이싱의 도자명인 김억주 명장과 판저펑 대사의 초청전이기도 하다. 문경의 김억주 명장과 이싱의 판저펑 대사는 연구와 작업 활동뿐만 아니라 두 지역의 도자


판저펑의 자사호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매우 적극적인 인사로, 이번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두 도시간의 문화교류에 또 한 번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문경 도자기 명인으로 선정된 김억주 명장은 문경 지역 도자기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문경도자기협회 회장직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문경도자기협동조합 이사장 직을 수행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경 찻사발축제 추진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최연소 장쑤성도자예술대사가 된 판저펑(范泽锋)은 현재 자사(紫砂)도예는 물론, 청자(青瓷)와 여자(汝瓷), 천목잔(天目盏) 등 자기(瓷器) 공예에도 능통하다.

자사호 관련 재료(자사)와 제작 과정에 대한 현대적인 정리와 자사와 다른 도자기 영역의 융합 발전 등의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이싱시 인민정부는 2014년 그를 학술기술선두주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불교를 소재로 한 자사작품을 전문적으로 창작하고 있다. 그는 불교와 자사를 결합하고, 자사를 통한 불교적 참선을 생활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많은 도자 전문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와 함께 판저펑 작가의 사상과 예술의 특징이 되고 있는 자사호와 불교예술 세계에 대한 이야기 마당도 열린다. 12월 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두 작가가 자신의 예술 세계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되고, 12월 6일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조계사다도회 주관으로 판저펑 대사의 '선심호운(禪心壺韻)', 즉 불교사상과 자사예술에 대한 작가의 견해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02)747-5634. 박재완 기자


김정은 作, 운문사

김정은 개인전 '물들다'展

12월 18~28일 나무아트
옻칠회화 10여 점 전시

옻칠화 전시가 열린다. 김정은 작가는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나무아트에서 개인전 '물들다(absorb)'를 개최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옻칠을 이용한 회화 10여 점을 선보인다. 옻칠화는 기원전 1~3세기 전부터 활용됐던 옻칠기법에서 파생된 회화로, 장인의 기술과 재료적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공예와 회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장르다.

옻칠은 화학물감과 달리 생명력을 지닌 천연물질로 건조과정이 화학물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옻칠의 민감한 반응을 다루고 의지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통한 숙련이 필요하다. 그림을 그린 후 칠장에서 적정 습도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섬세하고 까다롭게 작품을 말려야 한다.

색을 얹었을 때에는 앞서 말린 옻칠에 사포를 이용한 수작업이 있어야 새로운 색을 더할 수 있다. 때문에 여러 차례 말리고 갈아내고 색을 입히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옻칠은 여러 차례 칠을 더할수록 맑게 빛나고, 향균, 방습, 방오뿐 아니라 원래의 물질보다 훨씬 단단해지는 성질을 지닌다. 옻칠의 까다로운 제작기법과 옻빛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김정은 작가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의 오랜 시간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이번 전시의 그림은 운문사 명성 스님의 구순을 기념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박재완 기자

당선공고문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선거관리 위원회는 서기 2019년 9월26일 교구지방종회에서 신설 제정한 경남교구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경남교구종무원장선거법에 의거하여 경남교구 산하 유권자(사찰 대표자)에 의한 직선제로 제17대 종무원장 선거를 추진하여 왔던 바, 경남교구종무원장선거법 제 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선자를 확정 공표합니다.



■**선거내용** :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 제17대 종무원장 선거
■**투표일시** : 2019년 11월28일
■**실시결과** :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당 선 자** : 환명법인 스님 (승번: 101-0184 / 법계: 종사)

서기 2019년 11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선거관리위원장 **월명 종민**

